

기독교인의 종교적 서사정체성과 영적 웰빙 간 종교성향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orient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narrative identity and spiritual well-being among Christians

장상원 (Sang Won Jang)(1저자)**

김혜민 (Hyemin Kim)***

허유진 (Yujin Huh)****

이윤희 (Yunhee Lee)*****

박선웅 (Sun W. Park)(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identity and spiritual well-being and the mediating role of intrinsic religiosity between the two. Participants who were Christian ($N = 121$) completed measures of spiritual well-being and religious orientation and wrote a narrative about how they had become Christian. The collected narratives were coded by four trained coders based on the level of religious identity through internalization of religious self-concept.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religious identity coded from narratives and spiritual well-being, and this relation was mediated by intrinsic religiosity. In addition, extrinsic religiosity also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identity and spiritual well-being. The present research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internalization of religious self-concept in understanding religious orientation and spiritual well-being among Christians.

Key words: narrative identity, religious orientation, spiritual well-being, religious identity

* 2024년 2월 6일 접수, 3월 1일 최종수정, 3월 4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장상원의 석사학위논문(2024년 2월, 지도교수: 박선웅)의 일부를 요약 및 재구성한 논문임.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심리학부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sangjang@korea.ac.kr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심리학부 석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jackim0210@naver.com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심리학부 석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yougenie219@korea.ac.kr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심리학부 학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yunhee_rachael@korea.ac.kr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심리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sunwpark@korea.ac.kr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은 줄고 무종교인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 역시 지속적인 교인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기독교인이었다가 현재 무종교인이 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였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이 결과는,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모임과 멀어지고 언론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다뤄진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내적인 동기를 가지지 못할 때 신앙에서 떠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종교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전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을 전수 받은 개인이 그 신념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주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Ryan et al., 1993). 따라서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교인이 신앙을 내면화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교는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Erikson, 1962). 정체성이란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나 목표를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로서,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심리적 개념이다(문헌 외, 2023 ; 윤가영 외, 2022 ; Waterman, 1984). 정체성과 심리적 웰빙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보고되기 때문에(박선웅 외, 2023 ; 박선웅·박예린, 2019 ; Park et al., 2023),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성격심리학자들은 정체성이 인생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McAdams, 1995). 인생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묘사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이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이야기로서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방식으로 구성된 정체성을 서사정체성이라 부른다(narrative identity; McAdams & McLean, 2013).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이야기는 신앙이 그들의 정체성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종교적인 서사정체성이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서사정체성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다양한 맥락에서 확인되었다(심리치료 과정 참여자, Adler, 2012 ; 성소수자, King & Noelle, 2005 ; 다운중후군 자녀의 부모, King et al., 2000 ; 대학생, Lilgendahl & McLean, 2020).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서사정체성이 그들의 정신건강과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Schnitker et al., 2021). 기독교인들의 인생 이야기에 담긴 정체성은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서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와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심리학에서는 종교인들의 신앙생활 방식을 크게 두 가지 종교성향(religious orientation)으로 나누었다(Allport & Ross, 1967). 종교인들이 종교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내재적 성향과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외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김행복·설경옥, 2015 ; 박미하, 2014 ; 홍구화, 2022 ; Fulton, 1997 ; Mahalik & Lagan, 2001 ; Weinberger-Litman et al., 2016). 하지만 종교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종교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체성을 상정하였다. 종교인들이 가지는 종교에 관한 정체성은 그들의 종교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적 경험에 대한 서사문에 드러나는 정체성과 영적 웰빙의 관계와 이 관계를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인의 종교적 서사문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종교적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영적 웰빙을 경험하는지와 이 관계에서 종교를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신앙적 가치 내면화되어 자신만의 이야기로 형성된 사람들이 더 건강한 형태의 종교생활을 영위하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적 웰빙

인간의 건강한 상태를 논할 때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더해 영적인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적 구성개념인 영성(spirituality)은 삶의 물질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존재나 힘을 인식하거나 세상과의 연결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되었다(Myers et al., 2000). 선행연구에서 영성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인간의 정신건강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종단 연구를 포함한 많은 연구가 영성이 우울, 웰빙 그리고 자존감과 같은 정신건강의 변인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다(Garssen et al., 2021 ; Yonker et al., 2012).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들은 가장 성숙한 수준의 웰빙을 영성과 같은 삶에 대한 초월적인 태도에서 찾고 있다(Ellison, 1983).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거나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할 때 보편적으로 쓰이는 척도는 영적 웰빙이다. 영적 웰빙은 인간의

웰빙을 예측할 때 경제적 지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인간이 가지는 초월에 대한 열망도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에서 등장하였다(Ellison, 1983). 영적 웰빙은 종교적 웰빙과 실존적 웰빙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적 웰빙은 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아 준다고 느끼는 것과 같이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웰빙을 말하며, 실존적 웰빙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경험하는 웰빙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영적 웰빙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적 웰빙은 우울과는 부적의 상관이 나타나고, 정신건강과는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전예령·유지은, 2019 ; Bekelman et al., 2007 ; Jafari et al., 2010). 즉, 높은 영적 웰빙을 경험할수록 낮은 우울감을 느끼고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보고했다. 또한 영적 웰빙은 웰빙을 측정하는 다른 변인인 심리적 웰빙, 정서적 웰빙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황혜리 외, 2011 ; Kim et al., 2000). 중독과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웰빙은 중요하다. 알코올 중독자 대상 연구에서 영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실존적 웰빙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변인인 삶의 질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이상민·강문희, 2019). 또한 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건강증진 행위의 관계를 영적 웰빙이 매개하였다(박순희·오복자, 2021). 영적 웰빙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서경현·전경구, 2004).

본 연구는 기독교 종교인들의 종교에 관한 인생 이야기를 분석하여 영적 웰빙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종교적 인생 이야기와 영적 웰빙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서사정체성과 웰빙의 연관성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결과를 종교적 맥락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관계를 종교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동기로 종교생활을 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하는지 확인하여 그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려고 한다.

2. 종교성향

종교성향이란 종교인들이 종교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내재적 종교성향(intrinsic orientation)과 외재적 종교성향(extrinsic orientation)으로 구분된다(Allport & Ross, 1967).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적 신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화하여 따르는 것에 관심을 둔다. 즉,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종교인은 종교 그 자체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종교가 가지는 도구적인 유용성에 관심이 있는데, 이는 종교가 주는 평안과 위안, 종교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관계성과 지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종교가 말하는 신조를 따르거나 삶의 핵심에 두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종교적

가르침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성향 연구는 대체로 종교성향의 두 가지 방향성과 정신건강 변인 간의 관계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불안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외재적 성향은 불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졌다(김행복·설경옥, 2015 ; Bergin et al., 1987). 우울 역시 종교성향과 관계가 나타났는데,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고,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박미하, 2014). 또한, 섭식장애는 내재적 종교성향과는 부적인 관계, 외재적 종교성향과는 정적인 관계를 가졌다(Weinberger-Litman et al., 2016, 2018).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사람은 성별과 성격 특질을 통제하고도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았다(Haney & Rollock, 2020).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 사회적 삶의 만족, 심리적 웰빙 등이 높았고, 외재적 성향은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 변인들과 유의한 관계가 없거나 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현나, 2002 ; Steffen et al.,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정신건강과 심리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외재적 종교성향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과도 연관성이 있다. 다수의 연구가 종교성향과 영적 웰빙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의 두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외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의 두 가지 하위요인 중 종교적 웰빙과만 정적 관계를 갖거나(허현나, 2002) 두 가지 모두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Mahalik & Lagan, 2001). 반면에 종교성향의 두 가지 방향이 동일하게 영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Ellison(1983)과 Genia(1996)의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이 모두 영적 웰빙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재적 종교성향과 영적 웰빙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종교성향을 제외하고, 내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만을 가설로 세웠다.

종교성향과 영적 웰빙 간의 관련성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종교성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종교사회학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종교성향은 종교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성별과 나이 그리고 거주 지역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이원규, 1997). 즉, 사회적 조건에 따라 종교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종교성향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심리학에서는 종교성향을 이해하기 위해 정체성 지위(identity status)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는 탐색(exploration)과 한 가지를 선택하여 몰입하는 전념(commitment)이 모두 높은 상태인 정체성 획득(identity

achievement)이 내재적 종교성향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Fulton, 1997).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직업, 정치, 세계관과 종교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이념 영역의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정체성이 종교성향과 관계가 있음을 밝힌 것은 의의가 있지만, 종교적 정체성이 형성된 수준을 따로 측정할 수 있다면 종교성향과의 관계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성향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종교를 처음 접하고 신앙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종교적 가치를 수용하고 내면화한 결과가 종교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에서 내면화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따라야 했던 외적인 가치를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겠다는 내적인 가치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내면화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Ryan et al., 1993). 즉, 종교적 가치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준거 기준으로 삼는 내면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종교적 정체성은 종교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사정체성을 이용하여 종교적 정체성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서사정체성

McAdams(1995)는 한 개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된 서사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사정체성이란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인생 이야기로서 자신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제공한다(McAdams & McLean, 2013). 누군가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며, 그 안에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삶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격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로서 인생 이야기를 수집한다(McAdams, 2001). 수집된 인생 이야기는 서사문의 동기적 주제, 정서적 주제, 의미 유무, 서술 구조 등을 기준으로 코딩하여 다른 심리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연구된다(Adler et al., 2016). 여기서 코딩이란 서사문과 같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통계적 분석을 위해 특정 기준에 의거하여 숫자로 변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McLean과 Thorne(2003)은 개인이 과거 사건을 통해 새롭게 이해한 것을 의미(meaning)라고 정의하고, 동일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단순한 수준의 의미인 교훈(lesson)과 다른 삶의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높은 수준의 의미인 통찰(insight)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이후 이 코딩방식은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서술한 지시문을 코딩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의미를 보인 서사문은 긍정적으로 발달한 정체성 지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McLean & Pratt, 2006). 하지만 최근에는 의미를 코딩하는 방법론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Park과 Moon(2022)은 높은 수준의 의미

를 가진 글이 높은 점수로 코딩되지만, 그 서사문을 통해 McAdams(1995)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특정 자기개념이 내면화되어 다른 자기개념보다 중요하게 된 상태인 정체성으로 발달한 수준을 코딩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서사문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 수준이 심리적 웰빙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문현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Park과 Moon(2022)이 제시한 정체성 형성 수준을 코딩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서사문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 형성 수준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종교적인 전환점에 관한 서사문을 연구한 결과가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Kimball 등(2013)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겪은 종교적 전환점에 관한 서사문을 수집한 후 McLean과 Pratt(2006)의 코딩방식을 사용하여 글 안에 얼마나 성숙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 코딩하였다. 하지만 이 코딩방식을 따르면 종교적 전환점에 관한 서사문에 종교적인 측면이 부각되지 않거나, 그 경험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종교적 의미를 주었는지 서사문에 담고 있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종교적 전환점 서사가 꼭 종교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종교적 서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성숙한 의미를 담고 있는 3점의 이야기를 보면, 과거에는 삶에 대한 이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이 현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지 못한다. 또한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의 각 중위값을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서사문 개수를 비교하는 등 분석 방법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종교적 정체성을 다룬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사문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의 관계를 검증하고, 내재적 종교성향을 매개변인으로 보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종교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내재적 종교성향을 보일 것이며, 이는 높은 영적 웰빙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 1: 종교적 정체성은 영적 웰빙에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간 관계를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참여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교회 교역자를 통해 다수 교회와 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연구를 홍보하여 현재 교회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여기는 참여자 125명을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이메일을 통해 설문 링크를 받아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 척도와 그리스도인이 된 결정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문항에 답변하였다. 이 중 주의점검 문항에 오답을 택한 4명을 제외하고 최종 121명의 응답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나이는 29.87세(표준편차 = 9.16)였다. 남성은 55명, 여성은 66명이었다.

2. 설문 도구

(1) 영적 웰빙 척도

영적 웰빙 척도는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하고, 박지아(200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영적 웰빙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종교적 웰빙과 실존적 웰빙으로 구성된다. 종교적 웰빙은 신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느끼는 웰빙을 측정하며, 예시 문항은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다고 믿는다.’ 등이 있다. 실존적 웰빙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경험하는 웰빙으로, 예시 문항은 ‘나는 살아가는 것에 어떤 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등이 있다. 종교적 웰빙과 실존적 웰빙은 각각 10문항씩이며, 6점 척도로 평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영적 웰빙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종교적 웰빙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3, 실존적 웰빙의 내적 합치도는 .89였으며, 영적 웰빙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4이었다.

(2) 종교성향 척도

종교성향 척도는 Allport와 Ross(1967)가 개발했고, 신혜진(1991)이 번안하여 심수명(1993)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판의 종교성향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 한 문항은 ‘만약 교회에서 집단 활동을 한다면 (1)성경 공부 (2)친목 단체에 먼저 가입하고 싶다.’로 6점 척도로 답변하는 다른 문항과 응답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재적 종교성향 8문항과 외재적 종교성향 11문항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며, 6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며, 종교적 가르침을 살아내려는 것을 의미

한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종교를 자신의 위안과 사교 및 지위 정당화를 위해 도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적 종교성향의 예시 문항은 ‘나의 종교적 신념은 삶의 태도에 실제로 근본이 되게 한다.’ 등이 있고, 외재적 종교성향의 예시 문항은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슬픔과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 위안을 주는 것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의 내적 합치도는 .85, 외재적 종교성향의 내적 합치도는 .77이었다.

(3) 서사문

참여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경험에 대해 짧은 글을 작성하였다. 참여자들은 개인 컴퓨터에 제시된 빈칸에 최소 500자 이상 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정해진 분량을 다 채우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지 않았다. 참여자들의 서사를 수집하기 위해 제시된 지시문은 서사문을 통해 정체성 형성 수준을 평정한 선행연구의 지시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문현외, 202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가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이 경험은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고 일련의 사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여 하나의 글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와 관련이 있었으며, 귀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왜 이 경험이 귀하가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나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최대한 솔직하고 자유롭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3. 서사문 코딩: 종교적 정체성 형성 수준

본 연구는 서사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의 내면화 수준을 통해 참여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얼마나 확고하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자기개념이란 자신이 누구인지를 떠올릴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특성이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을 떠올릴 때 남자이고, 스포츠를 좋아하며, 성격이 급한 편이고, 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개념들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 이러한 자기개념들이 분리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흩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중요한 사건을 통해 수많은 자기개념들 가운데 특정한 자기개념이 내면화되고, 다른 가치보다 더 중요해져서 자신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성으로의 발전을 경험하기도 한다. 즉, 정체성 형성(identity

formation)이란 자기개념들이 재구성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정체성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형성된 정체성은 삶의 여러 맥락에서 가치판단의 준거 기준(frame of reference)으로 작동한다(문현 외, 2022).

본 연구에서 정체성 형성 수준을 포착하기 위해 서사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내면화된 수준을 코딩하였다. 서술한 사건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들의 삶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일성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의 목적의식이 글 안에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형성 수준이 높은 경우, 해당 사건에서 얻은 통찰은 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만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삶의 영역(domain)까지 확장되어 적용될 것이다(McLean & Pratt, 2006).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종교적 정체성 코딩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의 내면화 수준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1저자를 포함해 성격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3명과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부 연구보조원 1명으로 이루어진 4명의 연구원이 코딩을 실시하였다. 연구원들은 코딩 매뉴얼을 숙지하고, 함께 실습하여 코딩방식을 습득했다. 이후 각 연구원은 독립적인 장소에서 121개의 서사문을 읽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의 내면화 수준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연구원 전원은 코딩 시 서사문만 제공받았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한 다른 변인들과 인구통계학적 응답은 모르는 상태에서 코딩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종합된 점수는 4명의 평균을 내어 종교적 정체성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급내상관계수(2, k)를 통해 코딩에 참여한 연구원들 간의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1점은 필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이라 할 만한 것을 적지 않았거나, 경험한 사건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부여된다. 아래 예시의 경우 자신이 회심, 즉 마음을 돌이킨 경험은 없고 종교 경험을 부정적으로 서술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드러나지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점에 해당한다.

1점 예시. 모태신앙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등의 기본적인 종교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친목이나 봉사 같은 활동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 바쁜 일상으로 인해 예배 참석 이외의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결정적 계기라 할 수 있는 부분은 글썩요. 특별히 회심을 갖게 된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도 회심을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구요. ... (가족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어도 아마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하심은 믿기 때문이라고 할

까요? 추가적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친 일상과 삶으로 쉬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간섭하신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지켜보고 계실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이신론적인 성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늘 기도는 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2점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생겼으나 그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때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나타나지만, 현재는 과거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중요하다는 이해가 없다면 2점이다. 아래에 제시된 예시의 경우, 필자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결정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신에 대한 고민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자기개념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자기개념이 현재 삶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자기개념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언급도 없다. 또한 신과 종교는 필요한 것이라는 정도의 이해는 정체성으로 발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서사문은 2점에 해당한다.

2점 예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목사이시고 어머니 집안이 전부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 어디로 이사를 하던 한 번도 교회에 안 다니고 있었던 적이 없었고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전부 거치는 내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시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저 모태신앙이라 얼마나 더 길게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경험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설교를 듣고 교회 사람들과 가장 많이 어울렸고 교회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생각도 못해봤고, 그저 기독교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반강제적으로 기독교 생활을 이어간 것은 아니고, 고등학생을 거치고 성인이 되면서 삶과 죽음, 신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신과 종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수많은 신이 있겠지만 제가 평생 믿어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은 분명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3점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현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서술할 때 부여한다. 최고점인 4점과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삶의 전반적

인 곳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거나, 다른 자기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3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다뤄지고는 있으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표현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건들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준거 기준이 되지 못할 때 주어진다. 아래 예시에서 필자는 학창시절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 이겨내었던 경험을 서술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타나지 않으며,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3점에 해당한다.

3점 예시. 가장 결정적인 경험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친구, 성적, 기숙사 생활 등)이 많았기에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힘든 정도가 극에 달하던 시기에 미션스쿨은 아니지만 학교에 있던 교회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는 한 공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찬양을 틀어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원망스런 기도만 나와 하나님께 전학을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나가고 싶다고 기도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 정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도 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안 되겠다고 기도하는데, 자꾸 순종하라는 듯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없이 고민을 하다 어느 순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변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저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주님을 경험했던 일들이 모두 저의 삶에 스며들어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인 4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전반적인 삶의 준거 기준이 되어 삶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주어진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삶에 통일성과 목적을 부여하는 정체성이라 부를 만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지만, 그 결심이 종교적인 삶에 국한되어 있다면 3점 이하를 받는다. 반면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결정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어 작용한다면 4점을 준다. 이들의 글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뚜렷한 확신과 목적의식이

나타날 것이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독자성(agency ; 김윤영 외, 2016 ; Park et al., 2023)이 나타난다. 예시의 필자는 그리스도인이 된 과거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할 만큼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삶의 판단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개념이 기준이 되어 작용하며, 자신이 하는 음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겠다는 목적의식도 나타난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다른 어떤 자기개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서사문은 4점에 해당한다.

4점 예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청소년기 15살에 처음으로 느끼고 난 후, 내 삶을 완전히 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개 기도하고, 절제와 훈련, 신앙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 때만큼 기도예 그리고 예배에 시간과 노력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내가 하는 전공이나 진로 방향이 그 때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며,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음악 분야에서 특출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음악을 깊이 파고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영감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자신이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님을 겸허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일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찬양 사역으로 아픔이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제가 더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저의 소망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많은 부분들을 착실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달라진 작업 환경에 적응해가며,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문화 사역에 정진하고자 합니다. 내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위 코딩 방식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서사문들을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이며, (중략)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을 전수하고 대물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 서술한 참여자의 경우 신앙적 가치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의지가 나타난다. 다른 참여자의 경우 어머니의 죽음 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감사와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서술하였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이 감사와 소망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에 나가 직

업인으로 생활할 때에도 기독교인으로서의 나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난다 생각합니다.”라고 적은 참여자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종교생활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맥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내면화되어 정체성으로 발전한 사람들의 경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내리는 결정과 판단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 1. 주요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4-1	4-2	5	6
1. 종교적 정체성	-							
2. 내재적 종교성향	.54***	-						
3. 외재적 종교성향	-.40***	-.47***	-					
4. 영적 웰빙	.59***	.73***	-.52***	-				
4-1. 종교적 웰빙	.62***	.78***	-.50***	.94***	-			
4-2. 실존적 웰빙	.47***	.57***	-.47***	.93***	.75***	-		
5. 성별(여=1, 남=2)	-.08	-.00	.02	-.04	-.07	.00	-	
6. 나이	.27**	.20*	-.31**	.33***	.31**	.32***	.14	-
평균	2.61	4.47	3.26	4.69	4.70	4.69	-	29.87
표준편차	0.73	0.81	0.68	0.79	0.89	0.79	-	9.16

* $p < .05$. ** $p < .01$. *** $p < .001$.

표 1에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서사를 코딩하여 도출한 종교적 정체성은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서사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웰빙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종교적 정체성은 내재적 종교성향, 나이와는 정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 그리고 나이와는 정적으로, 외재

적 종교성향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 그리고 나이와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2.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변인 간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 간의 관계를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병렬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의 PROCESS(Hayes, 2018; Model 4)를 사용하여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행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한 모델 안에서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위해서 예측변인으로 종교적 정체성을 설정했으며, 매개변인으로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 결과변인으로는 각각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을 설정하여 총 3번의 병렬매개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에 병렬매개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적 정체성은 내재적 종교성향과는 정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병렬매개분석 모형에서 내재적 종교성향과 세 가지 웰빙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3번의 분석 모두에서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 모두와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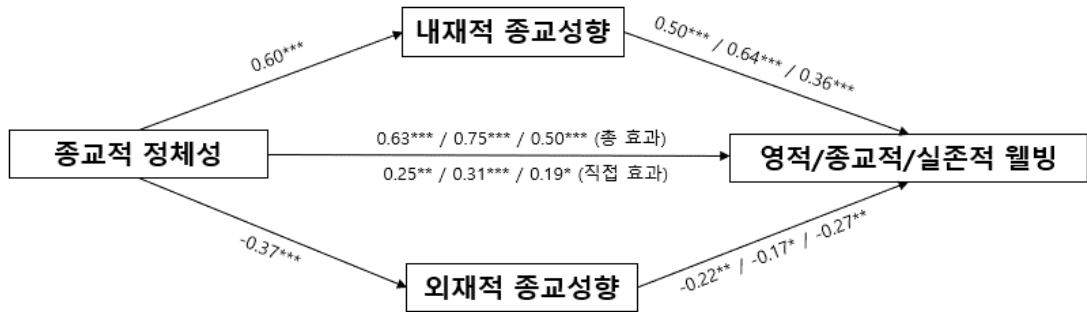


그림 1. 종교적 정체성과 웰빙 변인 간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의 간접효과

주. 비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었다. 사선(/)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의 통계 값을 나타낸다.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종교적 정체성과 웰빙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고, 표 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간접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분석 결과, 종교적 정체성이 내재적 종교성향을 통해 각각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외재적 종교성향의 간접효과도 세 가지 웰빙과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과 나이를 공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종교적 웰빙이 결과변인인 모델에서 외재적 종교성향의 간접효과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b = 0.04, SE = .03, CI [-0.003, 0.117]$). 이 외의 모든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성별과 나이를 공변인으로 투입했을 때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2. 간접효과 결과 요약

간접효과	<i>b</i>	<i>SE</i>	95% CI
종교적 정체성 → 내재적 종교성향 → 영적 웰빙	0.30	0.07	[0.172, 0.442]
종교적 정체성 → 외재적 종교성향 → 영적 웰빙	0.08	0.03	[0.026, 0.158]
종교적 정체성 → 내재적 종교성향 → 종교적 웰빙	0.38	0.08	[0.237, 0.546]
종교적 정체성 → 외재적 종교성향 → 종교적 웰빙	0.06	0.03	[0.009, 0.143]
종교적 정체성 → 내재적 종교성향 → 실존적 웰빙	0.22	0.06	[0.101, 0.355]
종교적 정체성 → 외재적 종교성향 → 실존적 웰빙	0.10	0.04	[0.033, 0.180]

V.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서사문을 통해 측정된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둘 간의 관계를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사문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은 영적 웰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종교적 정체성은 내재적 종교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간 관계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의 관계에 관한 가설 1과 내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2를 지지하고, 서사정체성과 웰빙의 정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합치한다(문현 외, 2022 ; Adler et al., 2016 ; Cox et al., 2019).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내면화되어 종교적 정체성 수준으로 발달한 것이 서사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영적 웰빙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내재적 종교성향으로 중

교생활을 하며, 내재적 종교성향을 많이 가질수록 높은 영적 웰빙을 누렸다. 추가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 역시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종교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외재적 종교성향이 낮았고, 낮은 외재적 종교성향은 높은 영적 웰빙을 예측하였다.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의 정적 관계에 관한 가설 1이 지지되었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스스로 신앙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인식하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교인들이 신앙경험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형성하는지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가설 2 역시 지지되었고 신앙에 관한 인생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다른 자기개념보다 중요해진 사람들은 신앙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신앙생활 형태로 여겨지는 내재적 종교성향은 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신앙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인생 이야기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종교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사정체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코딩의 기준은 서사가 가지는 구조적 특성 또는 주제에 관련된 비교적 지엽적인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Park과 Moon(2022)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체성 형성 정도를 직접 코딩하는 방식을 개발하였고, 본 연구에서 이 방법을 차용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인의 서사문에 나타난 내면화가 웰빙의 한 가지 차원인 영적 웰빙을 예측함으로써 이 코딩 방식의 타당성에 기여하였다. 정체성은 자기개념을 내면화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서사문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연구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업, 가정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내면화를 코딩하는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종교심리학에서 활발하게 연구된 두 가지 종교성향의 선행요인으로서 종교적 정체성을 발견한 것이다. 서사문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은 내재적 종교성향을 정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종교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교적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종교성향과 정신건강 및 웰빙 변인과의 관계성이 규명되어 왔다(김행복·설경옥, 2015 ; Bergin et al., 1987 ; Ellison, 1983 ; Mahalik & Lagan, 2001). 하지만 종교성향의 선행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저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인생 이야기의 형태로 존재하는 종교적 정체성이 종교생활의 동기인 종교성향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종교적 측면에서 서사정체성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실

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합의가 있다(Schnitker et al., 2021).

한편, 종교적 정체성과 내재적 종교성향이 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이유가 서사문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을 코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서사문에 나타난 종교적 자기개념의 내면화 수준과 내재적 종교성향은 단어 안에 모두 내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하지만,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생활의 동기를 친교나 위안과 같은 종교 외적인 목적에 두지 않고, 종교 자체에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서 자기개념의 내면화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가는 과정이며, 그 결과로서 타인과 자신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 형성된다. 따라서 서사문을 코딩하여 얻은 종교적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이며, 내재적 종교성향은 실제 종교생활의 행동양식과 경험을 포함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이 둘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사이에서 나타나는 외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에서 외재적 종교성향이 영적 웰빙을 예측하는 방향이 비일관적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를 가설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석결과, 내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을 정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것으로 두 가지 종교성향이 영적 웰빙을 반대방향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두 종교성향 간 부적 상관($r = -.47$)이 나타났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수적인 교파의 집단이나 종교성이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는 두 가지 종교성향의 부적 상관이 강하게 나타났다(Donahue, 198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교 참여 정도나 교파 등 종교성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종교적 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사교나 지위 정당화와 같은 종교생활의 비본질적인 측면을 더 추구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서사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 수준이 나이와 독립적으로 종교성향과 영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나이는 서사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릴수록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표현이 서사문에 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cLean, 2005). 이는 서사정체성이 나이와 일정 수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도 종교적 정체성과 나이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나이와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종교적 웰빙에 대한 외재적 종교성향의 간접효과만 사라졌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정체성 형성에 더 많은 기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하지만 나이를 통제하고도 여섯 가지 매개효과 중 다섯 가지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나이와 독립적으로 종교적 정체성의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사정체성을 횡단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비록 이론적으로 설정한 방향성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기는 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서사정체성 연구는 인생 이야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종단적으로 수행되기도 하였다(Adler et al., 2015 ; Cox et al., 2019). 서사정체성의 변인들이 종단적으로 정신건강을 예측한 결과를 고려할 때, 종교적 서사의 종단적 예측력도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의 종교적 경험을 내용에 따라 코딩하고 종교성향을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한다면, 어떤 종교적 경험이 종교성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종교 영역에서 서사정체성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시도와 접근이 가능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모태 신앙 여부가 코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서사문이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인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에 불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면화의 의미 안에 타의로 인해 종교적 가치를 따랐던 것에서 자의로 종교적 가치를 살아내는 것으로의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의 서사문에도 스스로 모태 신앙이란 표현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모태 신앙 여부 자체가 코딩 점수에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 여겨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모태 신앙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다면, 종교적 정체성에 대해 더욱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종교적 맥락에서 서사정체성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안한다. 서사정체성의 연구는 대부분 서사문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인생 이야기를 적거나 이야기하는 것 자체의 효과를 검증하기도 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게 했을 때, 인터뷰 전에 비해 인터뷰 후의 긍정정서가 증가했다(Turner et al., 2024). 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사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수집한 그리스도인이 된 결정적인 경험에 관한 인생 이야기는 간증과 비슷하다. 이 점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 일부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 자체에서 즐거움과 신앙적인 고양감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적거나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야기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교회의 초신자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할 기회를

가진다면, 더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의 과거 경험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종교적 장면에서 진술할 기회를 늘려준다면 교육적 효과도 클 것이다(김종백·김태희, 2014).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윤영·이예은·주민주·박유빈·박선웅 (2016). 독자성과 융화성: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두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283-308.
- 김종백·김태희 (2014). 자아정체감 탐색 도구로서 내러티브 접근의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 **청소년학연구**, 21(8), 463-493.
- 김행복·설경옥 (2015). 종교정향과 불안의 관계: 경험표집법을 통해 살펴본 부정정서와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83-403.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94&page=1 (검색일 2024.01.11).
- 문현·이다예·김소을·박수연·박선웅 (2023).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과 학년의 조절효과: 대학생 표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4), 553-572.
- 문현·이다예·김소을·박선웅 (2022). 심리적 웰빙에 대한 서사정체성의 증분타당도: McAdams의 성격 3수준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1), 1-24.
- 박미하 (2014).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19(1), 77-96.
- 박선웅·김혜민·이준배·문현 (2023). 한국어판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단축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2), 237-258.
- 박선웅·박예린 (2019).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2), 1-21.
- 박순희·오복자 (2021). 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건강증진행위: 영적안녕의 매개효과. **Asian Oncology Nursing**, 21(1), 33-41.
- 박지아 (2002).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경현·전경민 (2004).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33-350.
- 신혜진 (1991). **내적-외적 종교성향과 편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심수명 (1993).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자아분화와 죄책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윤가영·이준배·박선웅 (2022).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529-553.
- 이상민·강문희 (2019).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영적 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질의 관련성. **정신간호학회지**, 28(2), 114-123.
- 이원규 (1997).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 전예령·유지은 (2019). 기독교 대학생의 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 **기독교교**

육 논총, 58, 285-310.

- 허현나 (2002). **종교적 지향성과 영성적 안녕 및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홍구화 (2022).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심리적 기능의 관계: 종교적 지지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27(4), 177-198.
- 황혜리·서경현·김지윤 (2011).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09-724.
- Adler, J. M. (2012). Living into the story: agency and coherence in a longitudinal study of narrative identity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over the course of psychotherap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2), 367-389.
- Adler, J. M., Lodi-Smith, J., Philippe, F. L. & Houle, I. (2016). The incremental validity of narrative identity in predicting well-being: A review of the field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0(2), 142-175.
- Adler, J. M., Turner, A. F., Brookshier, K. M., Monahan, C., Walder-Biesanz, I., Harmeling, L. H., Albaugh, M., McAdams, D. P. & Oltmanns, T. F. (2015). Variation in narrative identity is associated with trajectories of mental health over several ye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3), 476-496.
- Allport, G. W. &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32-443.
- Bekelman, D. B., Dy, S. M., Becker, D. M., Wittstein, I. S., Hendricks, D. E., Yamashita, T. E. & Gottlieb, S. H. (2007). Spiritual well-being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2, 470-477.
- Bergin, A. E., Masters, K. S. & Richards, P. S. (1987). Religiousness and mental health reconsidered: A study of an intrinsically religious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97-204.
- Cox, K. S., Hanek, K. J. & Cassario, A. L. (2019). Redemption in a single low point story longitudinally predicts well-being: The incremental validity of life story el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87(5), 1009-1024.
- Donahue, M. J. (1985).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2), 400-419.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38.
- Erikson, E. H. (1962). *Young Man Luther: A study in psychoanalysis and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Fulton, A. S. (1997). Identity status,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1), 1-11.
- Garsen, B., Visser, A. & Pool, G. (2021). Does spirituality or religion positively affect mental health?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31(1), 4-20.
- Genia, V. (1996). I, E, quest, and fundamentalism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spiritual well-be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5, 56-64.
- Haney, A. M. & Rollock, D. (2020). A matter of faith: The role of religion, doubt, and personality in emerging adult mental health.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12(2), 247-253.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Jafari, E., Dehshiri, G. R., Eskandari, H., Najafi, M., Heshmati, R. & Hoseinifar, J. (2010).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in university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1477-1481.
- Kim, J., Heinemann, A. W., Bode, R. K., Sliwa, J. & King, R. B. (2000). Spirituality, quality of life, and functional recovery after medical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45(4), 365-385.
- Kimball, C. N., Cook, K. V., Boyatzis, C. J. & Leonard, K. C. (2013). Meaning making in emerging adults' faith narratives: Identity, attachment, and religious orient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32(3), 221-233.
- King, L. A. & Noelle, S. S. (2005). Happy, mature, and gay: Intimacy, power, and difficult times in coming out stor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2), 278-298.
- King, L. A., Scollon, C. K., Ramsey, C. & Williams, T. (2000). Stories of life transition: Subjective well-being and ego development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4), 509-536.
- Lilgendahl, J. P. & McLean, K. C. (2020). Narrative identity processes and patterns of adjustment across the transition to college: A developmentally contextualiz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4), 960-977.
- Mahalik, J. R. & Lagan, H. D. (2001). Examining masculine gender role conflict and stress in relation to religious orientation and spiritual well-being.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2(1), 24-33.
- McAdams, D. P. (1995). What do we know when we know a person? *Journal of Personality*, 63(3), 365-396.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2), 100-122.
- McAdams, D. P. & McLean, K. C. (2013). Narrative ident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2(3), 233-238.
- McLean, K. C. (2005). Late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narrative meaning making and memory tel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1(4), 683-691.
- McLean, K. C. & Pratt, M. W. (2006). Life's little (and big) lessons: identity statuses and meaning-making in the turning point narratives of emerging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42(4), 714-722.
- McLean, K. C. & Thorne, A. (2003). Late adolescents' self-defining memories abou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9(4), 635-645.
- Myers, J. E., Sweeney, T. J. & Witmer, J. M. (2000). The wheel of wellness counseling for wellness: A holistic model for treatment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3), 251-266.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1(1), 224-237.
- Park, Y., Kim, S., Kim, G., Johnson, S. K. & Park, S. W. (2023). Testing a process-oriented model of identity development in South Korean young adults. *Current Psychology*, 42, 5447-5461.
- Park, S. W., Kim, S., Moon, H. & Cha, H. (2023). Incremental validity of narrative identity in predi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in Korean adults. *Narrative Inquiry*, 33, 176-191.
- Park, S. W. & Moon, H. (2022). Assessing identity formation via narratives. *Current Psychology*, 41(6), 4066-4078.
- Ryan, R. M., Rigby, S. & King, K. (1993). Two types of religious internalization and their relations to religious orientation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3), 586-596.
- Schnitker, S. A., Williams, E. G. & Medenwaldt, J. M. (2021).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pproaches to religious and spiritual development in adolescents. *Adolescent Research Review*, 6(3), 289-307.
- Steffen, P. R., Clayton, S. & Swinyard, W. (2015). Religious orientation and life aspiration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4, 470-479.
- Turner, A. F., Cowan, H. R., Otto-Meyer, R. & McAdams, D. P. (2024). The power of narrative: The emotional impact of the life story interview. *Narrative Inquiry*, 34(1), 1-29.

- Waterman, A. S. (1984). Identity formation: Discovery or creation?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4), 329-341.
- Weinberger-Litman, S. L., Latzer, Y., Litman, L. & Ozick, R. (2018).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disordered eating pathology among modern orthodox Israeli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adherence to the superwoman ideal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7, 209-222.
- Weinberger-Litman, S. L., Rabin, L. A., Fogel, J., Mensinger, J. L. & Litman, L. (2016). Psychosocial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eating disorder risk factors in young Jewish women.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8(4), 265-276.
- Yonker, J. E., Schnabelrauch, C. A. & DeHaan, L. G.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on psychological outcomes in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dolescence*, 35(2), 299-314.

기독교인의 종교적 서사정체성과 영적 웰빙 간 종교성향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orient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narrative identity and spiritual well-being among Christians**

장상원 (고려대학교)

김혜민 (고려대학교)

허유진 (고려대학교)

이윤희 (고려대학교)

박선웅 (고려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사이의 관계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21명의 기독교인 참여자들이 영적 웰빙과 종교성향 척도에 응답하였고, 이 후에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서사문을 작성하였다. 수집된 서사문은 종교적 자기개념의 내면화로 형성된 종교적 정체성 수준에 따라 4명의 코더에 의해 코딩되었다. 그 결과, 서사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은 영적 웰빙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이 관계를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하였다. 추가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도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종교성향과 영적 웰빙을 연구하는 데 있어 내면화된 종교적 자기개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서사정체성, 종교성향, 영적 웰빙, 종교적 정체성